

왜 건설산업 혁신인가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구조조정이나 혁신은 대개 위기 상황에서 시작한다.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구조조정이나 혁신이 산업계의 화두가 되었다. 지금 조선과 해운 산업이 그렇다. 하지만 건설산업은 당장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5년 건설수주 실적은 사상 최고치인 158조원을 기록했다. 건설투자도 늘고 있으며, 국내 주택시장도 아직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런 시점에서 왜 건설산업 혁신이 필요한가?

국내 주택시장만 제외한다면, 건설산업도 심각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년 5월 말까지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전년 대비 약 40%나 줄었다. 국내 공공 시장은 물량도 정체 국면이지만,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더 큰 문제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중소 기업들조차 공공공사는 수주할수록 적자가 누적된다고 한다.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주택경기는 지방에서부터 침체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 입주 물량이 대규모로 쏟아질 내년 하반기부터는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건설산업을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과 함께 5대 부실업종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조선과 해운 산업의 구조조정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건설산업에 대한 여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 건설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단기 경기 부양책을 요구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런 요구가 쉽게 수용될 것 같지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기업과 정부를 가릴 것 없이 부채가 늘면서 건설투자 확대 여력도 줄었다. 미국의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 당장 건설업계는 주택사업을 대신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기술 개발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입찰찰제도 등 저수익 구조를 초래하고 있는 법·제도의 개선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이처럼 건설산업도 조선과 해운 산업에 뒤이은 구조조정 대상 업종으로 전략하기에 앞서 선제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국내 건설시장의 성장 한계를 인정한다면, 해외 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체의 노력과 더불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된 건설 정책과 법·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설계·엔지니어링 역량을 갖춘 미국의 벡텔 같은 종합건설(EC: Engineering &